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우종학, 2014” 비판

이재만(지질학 석사, 과학교육학 석사, 구약학(MTS) 석사)

2014년 10월 한국에서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우종학, IVP)” 라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관한 책 한 권이 출판되었다. 저자 우종학 교수는 예일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 중이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이며 모든 진화 과정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극단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한다. 이와 같은 진화 역사를 수용함에 따라 창조, 첫 사람 아담, 원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진화론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성경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다윈의 ‘종의 기원’(1859년)이 출판된 이래로 유럽이나 미국에도 기독교 안에서 극단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쓴 책이 여러 권 출판되어 교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쳐왔었다. 또한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책이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우 교수는 한국의 크리스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여러 글을 써왔고 수년간 KOSTA(북미 유학생 수양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실제로 우 교수의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로부터 그 동안 많은 문의를 받았던 바 이 책에 나타난 과학적/성경적 오류들을 지적하고 나누는 것은 성경의 무오류성과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진화론을 수용했을 경우 결국 진짜 역사인 성경 기록을 바꾸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우 교수의 책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책들이 등장했을 때 분별력을 갖추는데 귀한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성경에 대한 저자의 자세 I
 - 성경교 & 예수교
 - 솔로몬 성전의 물통
2. 제안된 진화의 증거들
 - 전이화석
 - 인간과 침팬지의 유사 유전자
 - 확률
 - 대폭발 이론

3. 아담과 원죄에 대하여
 - 첫 사람이 아닌 아담
 - 첫 범죄가 아닌 원죄
4. 그릇된 용어사용
 - 진화론=과학
 -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5.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
 -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틀렸음을 말한다
 - 창조과학 내용이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다
 - 창조과학은 안식교에서 출발했다
6. 성경에 대한 저자의 자세 II
 - 창세기와 육하원칙
7. 진화론 속에 갇힌 하나님
8. 창세기 1장이 사실 일 수 없다는 주장
 - 태양이 없이 어떻게 처음 3일을 알았나?
 - 골격해석
9. 맺는 말

1. 성경에 대한 저자의 자세 I

- 성경교 & 예수교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이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해석의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p. 110)

책 전체를 통해서 위의 문장은 저자인 우종학 교수의 성경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글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저자는 138억년 전에 시작했다는 빅뱅, 수십억 년의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었다고 말하는 지질시대, 생물과 인간 진화 등을 그대로 믿는다. 저자는 진화 역사를 전적인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진화론과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할 때 성경 기록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저자는 예수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성경을 이상시'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 속에 예수를 제외한 어떤 내용이 진화론과 다르다면 그 내용을 바꾸어도 된다는 것이 저자가 의미하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 인 것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런 자세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분별력을 갖고 이 책을 읽는다면 저자의 이런 자세는 어렵잡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이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가? 먼저 성경말씀을 읽어보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롬 1: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근거는 성경 전체에 있다고 말한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록은 주변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창조 과정에 대하여 극단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의 자세를 취하면서, 책에서는 '진화론적 유신론'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유신론적 진화론'과 다를 바 없다. 아래 문장들을 통해 그의 생각을 살펴보자.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 이론을 수용한다"(p. 248).

"예를 들어 창조주가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물을 창조했다고 보는 진화 창조론을 꺾을 수 있다" (p. 43).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저자 자신이 믿는 창조 과정을 책 말미에 다음과 같이 서술해놓았다.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멋있게 변해 왔다. 중력은 균일했던 아기 우주를 성장시켜 거미줄처럼 엮인 거시 구조로 바꾸어 놓았고, 오색찬란한 은하들이 병합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피고 졌다. 별은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나 산소와 같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우주 공간에 다양한 원소들을 뿌렸다. 이 원소들은 다음 세대에 태어난 별과 행성의 원료가 되었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 하나하나가 바로 이름 모를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과학은 은하와 별과 행성의 생성과 소멸을 담은 장구한 우주 진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흥미롭게 들려준다”(p. 242).

위의 글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우주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한번도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진화론적 믿음과 시공간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데이터와 모델에 의거한 외삽(extrapolation)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역사일 뿐이다. 저자는 책 전체를 통해 성경에 문자로써 기록된 역사를 이 가상의 역사인 진화론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을 던지면서,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 솔로몬 성전의 물통

저자는 열왕기상 7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의 물통(바다) 규격이 수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창조과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저자가 KOSTA나 여러 세미나에서 여러 번 되풀이 하였기에 여기서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저자가 비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물통의 규격이 “지름이 10자요, 둘레는 30자”(왕상 7:23)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는 지름의 3.14(π) 배이기 때문에 지름이 31.4자가 되어야 하는데 30자라고 하는 것은 수학 지식과 위배된다는 것이다(p. 112).

그러나 열왕기상 7장의 물통에 대한 설명 중에 23절의 지름과 원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어서 26절에 물통 규격에 대한 다른 요소가 명시되어있다. 물통의 두께가 등장하는데 “그 두께가 한 손 너비(약 10cm)만 하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역대하에도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역하 4:5)고 다시 한 번 물통의 두께가 기록되어있다. 이 두께를 적용하면 물통의 규격은 성경 기록이 정확함을 보여준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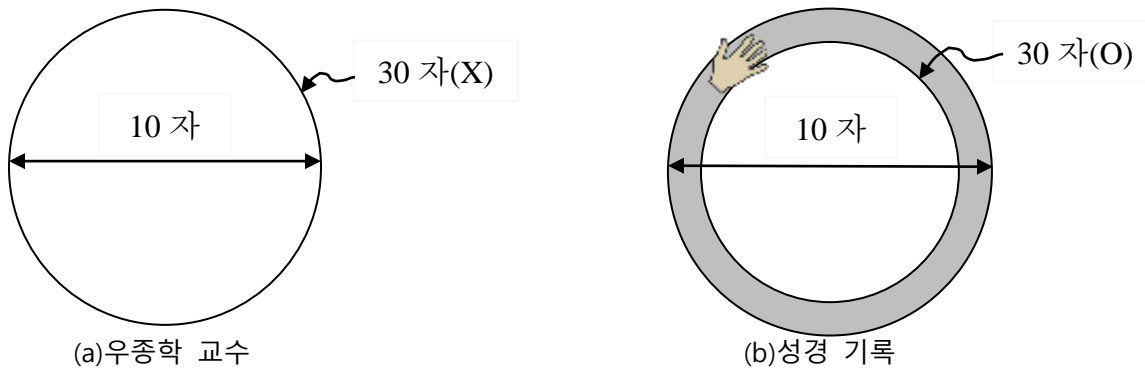


그림1.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물통에 대한 (a)우종학 교수의 이해와 (b) 성경 기록.

1 규빗을 46 cm로 보면, 물통의 외곽 지름인 10규빗은 460 cm이며, 둘레인 30규빗은 1,380 cm다. 물통 둘레 1,380 cm를 가지고 역으로 물통의 지름을 계산하면 440 cm ($\approx 1,380 \text{ cm} / 3.14$)가 나온다. 즉 물통 외곽 지름과 20 cm가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름은 물통 외곽 지름이지만 둘레는 물통 내곽의 둘레를 의미한다. 물통의 두께가 한 손 너비인 약 10 cm라고 할 때 양쪽에 적용시켜야 하므로, 내곽 지름 440 cm에 두께 20 cm를 더하면 정확하게 외곽 지름인 460 cm가 된다. 이렇게 물통의 규격을 기록하는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3.14(\pi=3.141592\dots)$ 라는 것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적을 수도 없고 두께 또한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없다. 이 때 외곽 지름과 내곽의 둘레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그 두께가 나오니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성경은 그 두께가 한 손 너비인 약 10cm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열왕기상 7장 26절과 역대하 4장 5절은 무시하고 단지 열왕기상 7장 23절만을 갖고 "솔로몬의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묘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지 수학적 원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p. 112)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정확성을 훼손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수학적 원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떻게 물통을 지으라는 정확한 규격이 기록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저자가 수학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의 렌즈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안타깝게도 실제 사실을 서술하는 성경 속에 진술의 '오류가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기존 크리스천 변증학자들이나 창조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되었었다 (Harold Lindsell, *Battle for the Bible*, 1976, The Zondervan)(Henry Morris, *Henry Morris Study Bible*, 2012, p. 541, Master Books). 뿐만 아니라 여러 주석 성경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신뢰를 갖고 관련 참고 문헌을 찾아보았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부분이다. 저자가 이 물통을 가지고 이 책에서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그릇된 비판을 주었던 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2. 제안된 진화의 증거들

저자 우중학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화의 증거들을 언급하기도 하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화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그 방식도 제안한다. 그의 책에 언급했던 진화의 증거들을 점검해보자.

- 전이화석

“최근에 진화 고리를 연결하는 화석들이 많이 확보되었고 연결고리마다 비어있던 틈새들을 채우는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p. 163)

그러나 저자는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확정된 전이화석은 단 하나도 없다. 1980년에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대진화'라는 주제로 당대 최고의 진화론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160명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이때 스스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화석에서 전이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전이형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가끔 전이화석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표된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너무 허약할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회의적이라는 반박이 등장한다. 최근 진화론자들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창조와 진화 논쟁에 있어서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곧바로 창조론자에게 공격 받는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연 저자는 어디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사실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화석이다. 전이화석으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과연 저자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전이화석 중에 확정된 예 하나만이라도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거꾸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전이화석이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하고 있다.

“빠르게 진화가 일어나는 단계에 있는 종들은 안정적 단계에 있는 종들에 비해 화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다”(p. 163).

이는 1980년초에 등장한 “단속평형설(Punctuated Equilibrium)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전이화석이 발견되지 않자 당시 진화론자 리더격인 굴드(Stephen J. Gould)가 상상해서 만든 이론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간단계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느 순간 진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화석을 남겨놓지 못했다는 이론이다. 얼마나 엉뚱하고 믿기 어려운 이론인가? 이 이론은 단지 전이화석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진화론이다. 이 이론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적지 않은 반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이화석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던 저자는 여기서는 전이화석이 없기 때문에 등장했던 상반되는 이론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냥 단순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진화했다는 고전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든지, 전이화석이 없기 때문에 등장한 단속평형설을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화석의 증거로 볼 때 이 두 이론 모두 만족되지 않는다. 저자는 여기서도 비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화석과 진화의 관계 대하여 저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인간과 침팬지의 유사한 유전자

“인간과 침팬지가 매우 유사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과 침팬지가 각각 과거에 같은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p. 166)

위의 언급과 함께 저자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기능과 상관 없는 유사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침팬지가 비타민 C를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인간도 동일하게 비타민 C를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다.

외모가 비슷할 경우 그 유전자가 유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침팬지와 인간은 염색체 숫자도 다를 뿐 아니라 그 격차도 너무 크다. 일반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통계 데이터를 만들 때 제외 되어버린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았다. 실제로 정직하게 비교하면 겨우 70% 정도만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 차이는 침팬지와 사람의 겉모습과 비교될 수 있는 숫자며 기존의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차이이다.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에는 없고, 사람에게에는 있지만 침팬지에게는 없는 것을 모두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더 커지며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의 동물들과 달리 인간과 침팬지가 비타민 C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비타민 C 생산에 필요한 유사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조상에서 진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유사 유전자들이 진화 과정에서 고장 난 유전자들이 아니라 다른 조절 목적을 위해 존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C 유사 유전자는 쥐의 비타민 C 유전자의 12 부분(exon) 중 4 부분밖에 없어 진화 과정에서 고장이 생긴 결과로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위해 그렇게 창조되었거나 타락과 저주 사건에서 정보를 잃어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진화의 증거를 내세우면서도 이들이 해석이라는 점을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도 못한 듯하다. 단지 진화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 교수뿐 아니라 많은 진화론자들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사성을 진화의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은 이들이 같은 공기, 같은 중력, 같은 음식, 같은 환경에서 살 것을 염두에 두는 한, 그

설계자가 모양과 기관을 유사하도록 만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편 각 동물의 기관들을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의 기관은 각 동물의 기능에 맞게 완벽하게 설계되었으며, 다른 동물에게 적용할 때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동일한 환경에서 각자의 기능을 고려하신 창조자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 확률

저자는 창조과학자나 지적 설계 운동자나 진화의 불가능성의 증거로 확률을 언급하는 것을 비판한다.

“우연이라고 설명되는 현상이 설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하나? ... 신이 우연한 사건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 즉 신이 그렇게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p. 92)

여기서 저자는 확률도 하나님께서 하신 설계 방식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복권을 당첨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예로 들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아.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당첨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외부의 통제나 방향성 없이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거든...”(p. 93).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책 뒷부분에 한 번 더 등장 한다(p. 201, 202).

이 주장은 독자들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정말 기막힌 발상 아닌가? 우연이라는 단어와 설계를 함께 묶는 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여기에 발생하기도 거의 어려운, 즉 결코 자연적이지 않은 확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화를 일으키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이다지도 어렵게 진화시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믿기 쉬운가? 여기에 복권을 당첨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예가 과연 진화를 통해 생물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주장을 위한 적절한 예가 되는 것인지...

제비 뽑기나 복권당첨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그 발생 빈도는 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단순한 세포는 고사하고라도 생명체에 사용되는 유기물이 형성될 확률조차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확률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불가능한 확률을 가진다. 그러니 확률을 가지고 논할 때, 제비 뽑기와 진화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불가능한 확률을 통해 진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느니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저자는 단지 창조론자가 언급한 것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발상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저자는 불가능한

확률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비이성적인 발상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진화가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창조과학자들이 확률을 통해 진화의 불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조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이 우연에 의해 작은 생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1/10^{125}$ 라는 식으로 진화의 불가능성을 설명한다. 사실 이런 설명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그렇지 확률적으로 접근할 때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확률이란 상대 빈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을 제한 시켜야 적용시킬 수 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요인이 더 늘어나면 그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진다고 말하려는 것이 실제 의도이다.

- 대폭발 이론

저자의 전공인 천문학 분야에서도 진화론적 우주론인 대폭발 이론을 진화의 증거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주배경복사를 대폭발의 증거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주 공간에 균일한 전자기파가 관측된다는 것을 빼고는 데이터가 아니라 모두 진화론적 해석이다.

예를 들면 저자는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배경복사는 대폭발 직후 우주의 나이가 약 35만 년 되었을 시점에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나갔던 빛을 가리키며...”

“우주배경복사를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이다”

“138억년 동안 우주는 멋있게 변해 왔다. 중력은 균일했던 아기 우주를 성장시켜 거미줄처럼 엮인 거시 구조로 바꾸어 놓았고, 오색찬란한 은하들이 병합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피고 졌다. 별은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나 산소와 같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우주 공간에 다양한 원소들을 뿌렸다...”(p. 242)

그러나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어나가는 이 모든 내용은 진화론적인 해석일 뿐이다. 우주배경복사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배경복사란 단어를 제외하고는 몇 단계만 들어가 보면 모두 진화론적 해석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동일한 페이지에서 “대폭발 이론은 패러다임에서 정설로 자리잡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폭발 이론은 아직까지 결코 정설로 자리잡은 적이 없다. 2004년 과학저널 New Scientist에서 세계 지도자급 과학자들에게 대폭발 이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 당시 참가한 229명의 과학자들 가운데 이 이론에 동의한 과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저자가 “정설로 자리잡았다”고 한 것은 이런

글을 읽어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이들의 주장을 무시했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이 패러다임에 전적으로 갇혀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이다.

저자가 믿고 있듯이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화론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탄소의 양이나 아르곤의 양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양을 가지고 자신들에 맞게 선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 어떤 돌들도 수십억 년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어디서부터 데이터고 어디서부터 해석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자와 함께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사실 저자가 언급한 균일하게 관측된 우주배경복사는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은하들의 우주배경복사는 폭발로는 그렇게 균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창조 첫째 날 언급되었듯이 처음부터 우주 공간에 균일한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와 행성들의 완전한 궤도와 주기 크기는 빅뱅과 같은 폭발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설계되었어야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3. 아담과 원죄에 대하여

- 첫 사람이 아닌 아담

우종학 교수는 이미 진화 역사를 사실로 전제해놓았기 때문에 진화론과 맞지 않는 성경 내용에 스스로 손을 댄다. 앞으로 지적하겠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창세기 기록을 고대 근동 창조설화 중에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첫 사람 아담과 그가 행한 원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벗어나 해석을 주저 없이 시도한다. 저자는 첫 사람 아담의 창조를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창조가 아닌 진화 방법의 결과로 주장하며, 아담의 원죄 문제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이 자연선택이나 유전자변이 등과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p. 84).

“아담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p. 229).

저자는 진화론적 아담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라고 반문한다. 이런 저자의 반문하는 방식은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자신’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에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크리스천은 첫 아담의 창조에 대하여

이유를 진화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물어보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창조에 대하여 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우 교수의 이러한 반문식 질문은 그 질문의 '이유'를 넘어 그 자체가 '반성경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자연선택이나 유전자 변이가 아직까지 종류를 바꾸게 하는 진화를 발생시킨 경우로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과정은 단지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변이만 생산했을 뿐이다. 우 박사는 과학적으로도 성립되어본 적이 없는 상상의 가정을 갖고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진화 과정 속에 창조되었다는 어떤 암시조차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창조과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고 기록하고 있다. 어디에도 수백만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음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진화 과정으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성경과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창조자의 성품과 전능하심에 손상을 입힌다. 창조과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책뿐 아니라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변형시켰던 모든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이와 유사한 시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시키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진화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진화조상으로 발표했었던 소위 '인류의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이 그리 많지도 않지만 이들 대부분은 모두 원숭이, 인간, 위조품, 아니면 다른 동물의 신체 일부로 판정이 났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진화론적 신념으로 단지 형태만 가지고 해석한 것일 뿐이다. 이는 진화론자들이 창조와 진화 논쟁을 할 때 인류의 공통조상을 진화의 증거로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 증거가 얼마나 허약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저자는 일단 아담이 진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성경에 없는 '스스로의' 상상 속 이야기를 펼쳐낸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달리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맞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인간을 창조한 방법 자체가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다"(p. 223).

그러나 저자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인간에 대한 창조 방법과 과정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자연적 방법이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처음부터 완전한 초자연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창 1:26)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며"(창 2:7)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의 갈비뼈로”(창 2:21)

이처럼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위의 주장을 펴는 것은 그가 진화론적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과 상반된 위의 성경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저자의 의도는 다음 문장을 읽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는데 아담이 유일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진화된 여러 개체와 집단들 가운데 선택된 존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아담의 시대에 다른 인간들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p. 232)

“인간의 진화가 한 개체에서 일어난 것인지 혹은 집단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물학적 진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든지, 신은 한 인물이나 공동체를 택해서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p. 232)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존재라는 것은 아담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지 아담을 선택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언제나 “첫 사람 아담”(고전 15:45)이다. 창조했을 당시에는 세상에 한 사람 밖에 없는데 무슨 선택이 있겠는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저자는 아담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견해든 신은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p. 233)고 하며,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견해에는 포용적이며,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에는 반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화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다. 성경은 진화란 것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도 않으셨으며, 인간이 진화의 산물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 첫 범죄가 아닌 원죄

저자가 아담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진화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담이 행한 원죄에 대한 부분도 모두 비성경적인 해석을 취한다.

“원죄가 사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전승되는 것이라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일 필요는 없다...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234).

저자는 이번엔 여기서 ‘필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아담이 유일한 조상이라는 것이 필요에 대한 문제인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도 없고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죄 지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이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일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는 무엇이며, 이 때문에 사망이 왔고, 가시덤불과 영경귀가 난 창세기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한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무슨 의미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롬 5:12)고 한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행 17:26)에서 성경이 말하는 한 혈통은 아담부터가 아니라 진화의 조상인 아메바란 말인가?

저자는 아담과 원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여러 신학자들을 나열한다. 그러나 이는 신학자를 나열할 문제가 아니다. 저자가 나열한 신학자들도 모두 진화론을 사실로 놓고 성경을 변형시키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저자와 똑같다. 진화 역사를 사실로 믿고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놓고 성경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변형시키거나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신학이 등장했을 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에 진화론 등장 이후에 영국 신학자들이 만든 유신론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기독교 신앙을 전수했다면 왜 지금 영국교회가 전체 인구의 2%도 수용하지 못하며 몰락했겠는가! 그리고 미국 교회의 젊은 세대가 교회에 등을 돌리는가!

저자가 그냥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떳떳해 보인다 마치 성경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을 어지럽히며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비롯되며, 특별히 창조사실이 담긴 창세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며 복음도 사라지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난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을 먼저 수용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랬다. 그러나 저자는 책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4. 그릇된 용어 사용

'사실(fact)'이란 단어가 있다. 한 마디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인 별, 지층, 화석, 생물, DNA...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연구 대상을 데이터(data)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자신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서 현재 모습을 갖추었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들을 보며 '해석(interpretation)'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보며 해석해야 하는 것은 창조과학자나 진화과학자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어떤 화석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자. 이 화석은 데이터이다. 그러나 화석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화과학자들은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진화의 과정에 있던 생물로 해석한다, 한편 창조과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격변적 심판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기원이나 과거 역사에 대하여 말할 때 데이터와 해석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글을 쓰게 된다면 글을 쓰는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독자들에게 혼돈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나 과학잡지를 보면 그것이 데이터인지 해석인지 거의 구분 없이 나열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진화론=과학

우종학 교수의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저자가 단어 사용에 있어서 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통찰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디서부터 데이터이고 어디서부터 해석인지 혼동 속에 빠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용어사용은 과학이란 단어와 관련된 서술 속에서 일어난다. 저자는 “진화론=과학”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즉 “진화론”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야 할 문장에서 저자는 계속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과학은 진화론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단어다. 과학이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지식체계도 될 수 있고, 방법론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진화론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책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크리스천이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과학을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p. 11).

그러나 책 전체를 보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과학”은 “진화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책 전체를 읽어보면 저자는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될 때 마치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면 독자들의 머리 속에는 교과서에 배우던 ‘중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 ‘유전 법칙’과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이 문장뿐 아니라 이 책 전반에 걸쳐 과학이란 단어를 모두 진화론으로 바꾸어 읽으면 앞으로 저자가 전개하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지적설계 운동가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찾아내어 그것을 설계논증에 사용한다(p. 187)”

그러나 이 비판에서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적설계 운동가들은 생물들을 관찰할 때 진화과정(과학이 아니라)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생물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진화 이론 자체는 무신론 혹은 유신론이 아니라 그저 과학이란 말이다. 무신론이나 유신론은 과학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p. 37).

이 문장만 보면 진화론이 생물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 말하지만, 저자는 책 전체를 통해 진화 과정을 인정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도 진화되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은 하나의 해석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무신론과 유신론을 해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무신론, 유신론 문제는 신념체계이지 해석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도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어의 오용을 알고 보면 이 책에서 진화론과 과학에 대한 그릇된 용어 사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하여 고찰하다’, ‘성경과 과학, 함께 생각하다’, ‘과학과 기독교, 적일까 남일까’, ‘과학의 창으로 창조를 보다’와 같이 책의 소제목에서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책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진화론이란 용어를 과학이란 용어로 대체한 것이다. 모든 과학이란 단어를 진화론으로 바꾸면 정확한 제목이 될 것이다.

-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창조과학 사역자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과학에는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과학”의 영역이 있는 반면,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려는 “역사과학”의 영역이 존재한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논쟁은 바로 이 역사과학의 영역인데,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 모두 동일한 자료(화석, 지층, 생물 등)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 및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창조과학자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은 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진화론자와의 차이점은 거기 계셨던 분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차이뿐이다. 과거 사실을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소위 “증인”을 만나서 그의 “증언”을 들은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가 증인을 받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성경 기록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경에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그 이후 전 지구를 쓸어버리셨다는 격변적 심판 기록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전이화석도 없고 생물들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로 묶여진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때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이 과학적 데이터들과 맞아 떨어진다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다. 화석, 지층, 별, 생물과 같은 증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증인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의 차이에 대하여도 이해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저자가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즉 천문학의 연구의 대상인 별들 자체에 대한 데이터(실험과학)와 이 별들을 통해 과거를 유추해야 하는 해석(역사과학)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두 과학의 차이에 대한 저자의 불분명해 보이는 이해 역시 “진화론=과학”이라고 여기는 저자의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이유로 이어서 다룰 창조과학자에 대한 저자의 비판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진화의 증거보다는 주변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5.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

우종학 교수는 창조과학을 비판하는데 한 단원을 할애했을 뿐 아니라, 책의 곳 곳에서 창조과학을 비판한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

-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틀렸음을 말한다

“창조과학자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은 과학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p. 140).

저자는 여기서도 “진화론”이란 단어를 넣어야 할 곳에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창조과학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준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와 방법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진화론”과 맞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도 과학 대신에 진화론을 넣어보라. 오히려 창조과학의 올바른 정의로 바뀐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나 화석에서나 전이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생물들을 교배할 수 있는 단위(종, 속, 또는 과, 창조과학자들은 이를 ‘종류’라고 부른다)로 묶을 수 있으며,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종류가 바뀌는 예를 관찰하거나 실험에 성공한 예가 없다. 이 결과 진화론이 과학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증거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부정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창조과학자들을 매도하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 내려간다.

“(창조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과학이 타락했다고 정죄한다”(p. 138):

“창조과학자들은 주로 취하는 방법이 과학이 틀렸음을 보이는 것이다”(p. 140):

여기서도 저자는 진화론과 과학을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오해를 부추긴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창조과학 분야가 지질학에만 국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창조과학이 담고 있는 과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20세기 초부터 창조론 운동에 근간이 되어온 홍수지질학(flood geology)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p. 139)

창조과학 분야는 홍수지질학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미국의 창조과학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라. 지질학뿐 아니라, 천문학, 생물학, 고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들을 발견할 것이다.

“창조과학은... 성경의 내용들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p. 33):

창조과학자는 성경의 기록들이 과학으로 “증명(proof)”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 별, 생물, 사람과 같은 연구의 대상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의 대상(data)들이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증거들(evidences)”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의 창시자인 헨리 모리스 박사를 예로 들며 그분이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비판한다(p. 110). 그러나 단순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비판할 내용이 아니다. 그의 책의 전반을 읽어보아야 모리스 박사가 말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모리스 박사가 과학 교과서라고 말한 것은 성경이 천체의 위치와 궤도를 설명한다든지, 지구의 화학적 구성물질을 언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 역사(즉 앞에서 언급한 역사과학)는 거기 계셨던 증인인 창조자를 통하여 가장 쉽게 알 수 있으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거기 계셨던 그 창조자가 계시한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어 [열왕기상 7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의 물통 규격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사실로 전하는 태도를 비판한다(p. 112). 그러나 오히려 모리스 박사는 이 물통 규격에 대한 성경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의 책에 이미 언급하였다. 물통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 창조과학 내용이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다

“창조과학은 과학이라 할 수 없네. 과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방법론을 창조과학자들이 제시한 것도 아니고...”(p.139).

저자는 창조과학자의 글을 국제적인 학술지에 신지도 못하는 빈약한 주장이라고 치부하였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창조과학자 중에는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수록한 분도 있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라간 분도 있다. 또한 현재도 과학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은 과학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비판이다. 학술지의 수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당시의 우선하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수십 년간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던 것은 창조과학자들의 글만이 아니었다. 지질학적 증거들이 짧은 기간에 격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문은 어느 지질학자든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질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오늘날과 동일한 속도와 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층과 지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과 상반되는 지구가 지금과는 다른 격변을 겪었다는 해석의 논문들은 197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등장했고 최근에는 학계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지질학 연구가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최근 논문의 대부분은 격변적으로 해석한 것들이다. 지질학계 안에서 기존의 동일과정설에서 격변설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술지의 수록 여부는 설득력 문제보다는 분명 패러다임의 문제인 것이다.

저자는 설득력이 패러다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옹호하기 위해 지동설과 천동설을 예로 든다. 지동설이 등장한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케플러가 타원의 법칙을 통해 수학적으로 지동설을 증명하기까지 갈릴레이가 지동설의 증거를 제시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동설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한다(p. 53). 즉 패러다임보다 설득력이 약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쉽게 선후를 내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지동설을 믿고 있었다면 갈릴레오의 증거들을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계 안에서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들 수 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인 파스퇴르(Luis Pasteur)가 탄저균 백신을 개발했을 때 당시 과학자들은 그 백신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덩치 큰 동물들이 현미경에서나 보일까 말까 한 미생물에 의해 죽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때 설득력이 먼저일까? 아니면 당시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패러다임)이 먼저였을까? 파스퇴르는 이미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해왔었다.

의학계에서 가장 큰 발견을 꼽으라면 리스터(Joseph Lister)의 화학살균을 꼽는다. 그가 화학살균을 통해 수술을 마치고 감염을 차단시키며 감염 막는 것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 년 동안 그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많은 생물학자나 의사들이 세균은 몸에서 자연 발생한다는 진화론적 해석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설득력이 먼저인가 패러다임이 먼저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 철학자 쿤(Thomas Kuhn)은 과학계가 가장 큰 전제를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전제를 따른다고 했다.

어떤 과학자가 “신(god)” 또는 “성경”을 자신의 논문에 게재했다고 치자. 과연 그 논문이 받아들여질까? 천문학자인 저자가 진화론적 우주론을 설명하면서 논문 말미에라도 ‘이 일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쓴다면 어떤 과학저널이 이 논문을 받아들일까? 지금 자신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 내용도 과학저널에는 실릴 수 없는 것들이다.

아마 저자는 창조과학 글이나 책을 읽을 때 객관성을 갖지 않고 읽었거나 비과학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을 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에게 편견을 버리고 창조과학자들의 기술적 논문들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여기에는 1차 문헌을 다룬 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유명 논문지에 실리지 않는 않지만 이 과학자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미국창조과학 연구소에 있을 때 그곳 도서관에는 국제적인 학술지를 포함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저널들이 늘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논문을 읽고 계셨던 교수님들을 기억한다.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보지 못한 것을 가볍게 추측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삼가야 할 태도일 것이다.

- 창조과학은 안식교에서 출발했다

“창조론자들의 문자적 성경 해석은 사실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중요시했던 제칠일안식교의 극단적인 문자적 성경해석의 전통에서 출발했다”(p. 147).

저자는 창조과학의 출발을 제칠일안식교의 극단적인 문자주의 성경 해석의 전통에서 왔다고 비판한다. 사실 이런 질문은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접하는 질문이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 교수는 창조과학자들이 홍수지질학을 언급한 안식교인인 맥크리디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 1870-1963)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프라이스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안식교인이다. 그는 과학과 성경에 대하여 높은 지식을 가진 소유자였으며, 그리고 홍수지질학에 대하여는 당시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설명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창조과학자들이 그의 지질학적 해석을 공유하는 것이지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대 창조과학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헨리 모리스 박사도 그의 홍수지질학에 대한 업적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나는 침례교인으로서 그의 종말론과 구원론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History of Modern Creationism, 1993).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안식교에 소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모두 거듭난 크리스천들이다.

이들이 프라이스의 과학적 해석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창조과학자를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저자는 창조과학자들이 문자적으로 6일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이단인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단을 규정할 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단 단체로 묶는 태도가 옳을까, 아니면 오히려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단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6000년 전에는 세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6일 간의 창조를 믿는 그가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자인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inspired) 쓰여졌다(딤후 3:16). 여기는 창세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기신(inscribed) 것이다(출 31:18). 영어로는 “inscribed by the finger of God”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기신 것이다. 손가락으로 직접 새기시며 말씀하신 6일 간의 창조는 감동으로 쓰여진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6일 동안의 창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안식교에 근거했다고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인가 말이다.

과연 자신이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며(출 20:11),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출 35:2)? 6일이 기록된 대로 평범한 옛새가 아니라면 안식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실제로 본인이 안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식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그러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누구인가(마 12:8)? 그분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크리스천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눅 24:1)? 과연 창세기 1장의 하루를 하루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내리신 조치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단들은 우리가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성경 기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창조론 사역은 안식교인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해왔었다. 과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루터교 목사 바이런 넬슨(Byron Nelson)의 “돌속에 홍수 이야기(Deluge Story in Stone, 1931)”는 창조론적 지질학의 뛰어난 책으로 꼽힌다. 그의 “종류대로(After Its Kind, 1932)”와 “아브라함 이전(Before Abraham, 1948)”도 그의 역작이다. 그 밖에 “진화에 대한 에세이(Essay on Evolution, 1925)”와 “하나님과 우주(God and the Cosmos, 1943)”를 쓴 데어도르 그래브너(Theodore Graebner), “홍수(The Flood, 1951)”를 쓴 알프레드 리윈클(Alfred Rehwinkel), “크리스천을 위한 매일 과학(Everyday Science for the Christian, 1947)”과 “창조-사실, 이론, 그리고 믿음(Creation- Facts, Theories, and Faith, 1953)”을 쓴 데어도르 헨드리치(Theodore Handrich) 등. 여기서 지면상 모두 소개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의 세파 속에서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의 위치에서 글을 썼다. 그럼에도

자세한 역사적 연구 없이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경에 적혀있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과학을 안식교에 뿌리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6. 성경에 대한 저자의 자세 II

- 창세기와 육하원칙

저자는 “**창세기가 육하원칙에 의해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창세기 1장은 전쟁을 경험했던 한 주민의 전투기록과 같은 것인지 정보장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쓴 전투기록이 아니라고 말한다(p. 210-212). 즉 창세기 1장을 전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한 주민의 전쟁기록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 저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그린 책이 아닌, 부정확하고 제한된 시야로 쓰여진 ‘사람의 책’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러나 육하원칙이란 무엇인가?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사람이’ 정한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평가절하 한다면, 이는 성경을 자신의 사고 아래 가두려는 위험한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이 육하원칙의 요소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언제(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디서(무無에서, 지구 위에, 하늘에 궁창에), 누가(하나님이), 무엇을(천지, 동식물, 별들, 인간을), 어떻게(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며 바다를,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식물은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로, 별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인 “왜”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이 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안에 필요한 각 요소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육하원칙이 빠진 불완전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우주가 시작되었고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었다는 진화 역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의 진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문제를 다루고, 신앙은 ‘왜’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말할 수도 있다”(p. 120).

이것은 바른 말이 아니다. 만약 우 교수의 말대로 신앙이 왜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앙이든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철학에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육하원칙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다른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이것이다. 시공간 속에 일어난 하나님, 인간, 피조물, 사탄이 행했던 역사를 통틀어서 '왜'란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문장은 우 교수 안에 있는 잠재된 결심일 것이다. 위의 문장을 "나는 과학으로부터는 '어떻게'에 대한 답을 가져오고, 신앙으로부터는 '왜'란 답을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바꾸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막연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닌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실재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크리스천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아는 것이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작용의 원리에 대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조금 알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학은 '왜'에 대한 대답을 전혀 줄 수 없다. 다시 말해, 과학은 물질 세계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려줄 뿐이고, 기독교 신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과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결국, 우 교수는 과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앙으로부터 '왜'의 답을 찾으려는 자신의 태도를 마치 과학은 '어떻게'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신앙은 '왜'에 대해서만 말해줄 수 있다는 식의 이원론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러한 태도는 과학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반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그릇된 신앙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어느 역사책보다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만약 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일부러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왜"라는 부분에만 국한해서 알려주려고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 속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격과 방법까지 기술하게 하셨고, "어떻게" 만들라고 그토록 상세하게 서술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결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우 교수가 '있는 그대로'보다 얼마나 '자신이 믿는 전제'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래 내용도 저자의 비슷한 자세이다.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자연사를 담은 과학책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 내용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p. 215).

저자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한 백과사전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 생물, 인간의 창조, 타락, 전지구적인 격변적 심판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연사를 분명히 담고 있다. 단지 저자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경 속의 이런 기록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언급한 백과사전과 과학책은 모든 역사와 진리를 포함하는가? 그것들 역시 모든 것을 옳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제한적인 것들이다. 저자의 이러한 언급은 저자가 성경보다 백과사전과 과학책에 더 큰 신빙성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성경이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사실'을 적은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의미란 모든 것이 진술되어있다는 말은 아니다. 말 그대로 적혀있는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적혀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종류대로 창조된 생물', '이를 다스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먹거리로 창조된 식물', '옛세 동안의 모든 것 창조', '지구를 첫째 날, 별들을 넷째 날 창조', '첫 사람 아담' 등 성경에 기록된 모두는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사실을 근거로 유추할 때만 실수하지 않고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릇된 예는 성경에 대한 저자의 오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7. 진화과정 속에 갇힌 하나님

우 교수는 창세기를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개념으로 쓰여졌다고 단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사실로 믿는 진화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창세기는 몇 천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주 대폭발이나 우주 팽창 혹은 생물 진화를 하나님이 창세기 기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기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우주관을 토대로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대폭발을 통해 '우주 팽창을 시작하시니라' 라던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인간의 몸을 구성할 탄소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표현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다”(p. 213).

그런데 우주가 폭발이나 핵융합으로 시작했고 생물이 진화되어왔다는 것은 누구의 상상이며 누가 만든 단어인가? 모두 진화론적인 해석에서 나온 단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영상을 창세기 기자에게 보여주실 리도 없거니와, 창세기에 이들 단어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이 사실을 적은 책이 아니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하는 생각은 정말로 억지가 아닌가?

별이나 우주 공간은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주와 별들이 창조될 때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연구 대상을 갖고 과거의 일들에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 해석의 과정에는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 글의 뒤에 저자의 용어 사용 문제점을 지적할 때 더욱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크리스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 피조물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증인의 증언과 같다. 그러나 저자는 반대로 행하고 있다. '말을 하지 않는 피조물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은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말을 하지 않는 피조물'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아래 두 문단도 저자의 동일한 자세를 보여준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목적론적 질문을 제외한 모든 과학적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자연적 방식, 즉 '과학으로 답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런 전제를 크리스천이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p. 195).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과거에 대하여 스스로 깨달아 알려고 하는 자세를 단호하게 꾸짖는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욥 38:4)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행하신 과거 일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과거에 대한 사실은 언제나 거기 있었던 증인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 반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계시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려준다”(p. 10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자가 말하듯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이 이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스스로 알 수 없다. 과학자가 우주와 생명의 운행하는 지금의 모습을 관찰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와서 이와 같이 운행하고 있는지는 그 시대의 신념과 자신의 편견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학의 한계와 과학자의 오류는 '과거'에 대하여 재구성하려고 시도할 때 훨씬 더 커진다. 과거에 대한 구성은 검증할 수 없는 전제와 해석들이 훨씬 더 많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겪었던 과거 역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주관하는지는 자연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창 1:16, 1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시 136:8).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히 1:3).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구절을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 자신의 편견으로 또 다시 해석해야 할까?

저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다음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 하기도 한다.

“과학은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종교를 정화할 수 있으며, 종교는 맹목적 숭배와 잘못된 절대성으로부터 과학을 정화시킬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각각 서로가 더 번영할 수 있는 더 넓은 세계로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다”(p. 106).

요한 바오로 2세의 위의 언급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언급이 창조자의 말씀을 가진 기독교에도 정당할 수가 있겠는가? 과학이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성경을 정화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그릇된 과거의 해석과 미신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하는가? 대답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1997년 진화론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가 종교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 바오로 2세와 저자의 생각이 유사한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화와 자연과정의 틀에 제한시키려는 저자의 태도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진화과정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역시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 저가가 갇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섬과 별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던 자연법칙을 따라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섬과 별과 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창조 세계의 구성물을 창조하고 계신다”(p. 244)“.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신을 우리의 설계 개념 안에 끌어내리려는 것이다”(p. 199).

“과연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p. 243).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의 창조 행위이다. 저자는 창조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으며 자연법칙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오히려 창조가 자연과정을 넘어선 설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설계 개념 안에 신을 가두어 놓는 '우물 안 개구리'(p. 200)의 자세라고 비판한다. 과연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진화라는 자연과정 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저자의 생각과 자연을 초월한 분의 설계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제한시키는 생각이란 말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저자의 의견은 성경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 2:1)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2)

창조 행위가 옛세 동안 다 이루어졌고, 창조에 관한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마쳤고', '그치셨다'(창 2:1-3). 하나님의 창조 기적으로 천지와 만물과 그것들을 운행하게 하시는 자연법칙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 법칙들에 의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고 계신 것이다. 자연적인 과정으로 자연 법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피조 세계의 운행과 작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 과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완벽한 설계 없이 과연 무엇이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인가? 창조가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의견은 성경과 현실세계를 다 왜곡시킬 뿐이다.

창조를 진화과정으로 제한하는 다음 주장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읽으면 저자의 그릇된 논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화과정이라는 한계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법칙 자체가 신의 작품이라면 자연현상을 신이 (창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겠나”(p. 70).

“행성들이 공전하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태양계는 분명 신의 설계였을 테지만, 그 설계가 실제로 구현된 것은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잇따라 만들어진 긴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다”(p. 88).

“우주 진화는 창조의 과정이다”(p. 243).

“신이 진화의 방식을 통해 생물들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했다면 어떤가?”(p. 89).

위의 언급들은 하나님을 자연법칙 안에 제한시키고 있는 저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또한 일관성이 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꿰어 맞추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신을 설계의 개념 안에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놓고, 아름다운 태양계는 분명 신의 설계였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설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 체계를 긴 시간 동안 형성되었다는 진화론적 개념에 끼워 맞추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긴 시간 동안 형성되었음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분명 이 세상의 어떤 지적 존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의 설계에 의한 작품임을 보여준다. 성경도 전지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기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렇다면 우주 진화라는 긴 시간 동안의 자연적인 과정에 의한 우주 생성은 무엇을 위한 설정일까? 다른 아닌 진화론적 신념을 위한 개념 설정에 불과하다. 자연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결국 자신들의 신념 안으로 모든 원인을 환원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읽으면 저자의 비논리적인 면을 어렵잖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통찰력 없이 읽다 보면 저자가 성경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들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서 대해서는 멈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p. 212).

그러나 정작 저자 자신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은 토를 달고, 가르쳐 주는 부분은 무시하며 지나간다. 성경 어디에 우주가 대폭발이 있었고,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가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연선택이나 돌연변이를 사용했고, 아담이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생각은 위험하다”(p. 250)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찾으면서 이 위험한 일들을 저자 자신이 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서 우주의 폭발과 진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원죄가 사회적 전승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 이어서 다루겠지만 우 교수의 책은 진화와 과학에 대한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한다든지, 해석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결국 그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진화 역사를 실제적 성경 역사와 함께 엮으려는 시도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당연히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다.

8. 창세기 1장이 사실일 수 없다는 주장

우종학 교수는 창세기 1장이 창조기사를 순서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논해보자.

- 태양이 없이 어떻게 처음 3일을 알았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극단적으로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 가령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겠나?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태양이 있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즉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낮과 밤이 있었고 하루가 정의 되었다는 말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p 146)

이런 질문은 창세기 1장을 다룰 때면 저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사실을 적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 주간에 걸쳐 시간의 주기도 창조하신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주기가 “하루”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주기다. 지구가 태양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지동설이 등장하기 오래 전에 이미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를 언급했다는 면에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의 계시를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주기는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며 언급된 “해(年, year)”이다(창 1:14). 모든 물질은 질량이 무거운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있다. 태양도 행성들의 질량의 비만큼 공전하는데 태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공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두 물체를 공전시킬 때 어떤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중심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만약 질량이 같은 두 별들이 서로 공전 관계를 갖는다면 각각의 별은 서로 공전하며 공전의 중심은 두 별 사이 중앙에 존재할 것이다.

즉 지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세 번 자전하고 네 번째 자전할 때 훨씬 무거운 태양이 창조되므로 자전만 하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진 이때 성경은 정확히 ‘해(year, 年)’를 언급했다. 만약에 성경에서 태양이 창조된 다음 하루를 언급했다면 과학자들에게 더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지구만으로 하루, 태양이 창조되었을 때 연한을 언급하는 정확한 순서를 보여준다.

빅뱅론자들은 하루와 한 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하는가? 또한 이를 믿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성경만 비판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 한 번 모델을 제시해보라. 느려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는 완벽한 하루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 정확한 시간의

단위들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보라. 우 교수가 상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자연법칙에 제한 받으시면서 이루셨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의 전능하심과 계획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성경은 모든 시작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전능한 분께서 처음부터 분명히 창조하신 것이다. 하루와 한 해도 마찬가지다.

- 골격해석

“창세기 1장은 시적 구조를 갖는데 첫 번째 3일과 두 번째 3일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궁창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육지와 같이 골격을 만들고, 두 번째 3일 동안에는 각각의 구조물에 들어갈 새나 물고기나 동물 같은 내용물을 창조한 것으로 배치해서 기록했다는 것이다. 창세기 기자는 창조와 안식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며, 시간적 순서를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다.”(p.144)

저자가 주장하는 골격해석은 최근 신학계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해석은 진화론이 보편화되면서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실제 기록으로 보기 보다는 시나 설화와 같은 하나의 문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진화론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은 저자가 언급한 처음 3일과 나중 3일이 서로 대조되는 골격해석의 예이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눔	넷째 날: 해, 달, 별 창조
둘째 날: 물을 궁창으로 나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
셋째 날: 물과 식물의 등장	여섯째 날: 육상동물과 인간의 창조

언뜻 보기에 위의 표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도 위와 같은 패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몇 가지만 보자.

첫째 날을 보면, 단지 빛과 어둠만이 등장하지 않는다. 시간, 하늘, 지구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넷째 날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식물도 언급되어야 한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오히려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고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지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어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둘째 날의 창조된 궁창 위의 물에 대하여는 다섯째 날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엄밀히 순서로 보자면 물고기는 둘째 날이 아닌 바다가 창조된 셋째 날과 대응되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어야 더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바다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환경요소를 먼저 갖추시고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사건이나 시간 순의 기록이 아닌 왜 시적 구조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집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우려 해도 어항과 물과 기타 환경적인 요소를 미리 준비하고 물고기를 어항 속에 넣는다. 이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미리 설계하고 고려하여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을 갖추는 지성적이고 당연한 과정이다. 어떤 사람이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풀어놓은 전 과정을 일기로 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일지로 받아들일까?

창세기 1장을 골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이미 성경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었을 리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이는 잘못된 편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된 다양한 요소들을 그냥 지나치고 자신이 원하는 문학 구조에 필요한 요소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왜 저자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불완전한 골격해석에 매료될까? 자신이 배워왔던 진화론의 영향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성경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9. 맺는 말

이 시대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진화론 시대"다. 한 시대를 지칭할 때는 그 시대의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묻어있는지 감지할 수 없다면 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대와 그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그 시대의 생각이라고 하면 거의 맞을 것이다. 그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 비판 없이 수용되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창조와 진화의 공개논쟁을 할 때면 진화론자들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진화의 증거로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내용이 진화의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모두 진화론을 배운다. 아마 진화론만을 배우고 산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기에 성경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르고 범하는 죄를 뭐라고 하실까? 성경에서는 모르고 범하는 것도 죄라고 하신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unintentionally)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 4:27-31)

즉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라도 누가 그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주면’ 암염소로 번제물을 드려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즉 모르고 범하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모르고 거짓말 하는 이들은 어렵잖게 일어날 수 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과학자가 진화론과 함께 믿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사실이라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의 변명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모르고 주장했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르고’ 성경에 진화 역사를 추가한 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과학자나 신학자의 핑계를 대고 성경 역사를 바꾸어도 거짓말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잠 30:6).

다른 유신론적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우종학 교수의 책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더했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직설적 언급을 하며 접근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며(창 3:1)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그때 하와는 “말씀”을 의심하고 범죄하였으며 결국 자신과 그 후손들이 모두 죄 아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 오늘날 수 많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그와 유사하게 성경을 진화론에 맞추려는 타협이론들은 진화론보다 훨씬 위험하다. 진화론은 ‘교회 밖에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한편 유신론적 진화론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 자체가 담고 있는 과학적 문제점만 교회 내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진화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무서운 오류를 교회 내로 끌고 들어온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기록을 당시의 전설이나 시로 전락시키려고 시도한다.

사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무지한 직설적 방법으로 크리스천을 시험하지 않는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는 ‘범죄 이전의 태초에 좋았던 창조’, ‘첫 사람 아담’, ‘첫 범죄 선악과 사건’, ‘홍수 심판’ 등의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는 성경 기록을 역사적 실재가 아닌 신화로 만들어 놓은 다음, 이것들을 복음과 상관없는 성경 속 주변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이 흐려진다. 과연 범죄 이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시기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언젠가 좋았길래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것일까?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모세가 쓴 글을 포함한 신구약 성경 전체이다. 만약 저자가 말하듯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교**라면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교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 ‘책’에 갇혀있는 성경 교인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시공간 속에서 성경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크리스천의 바른 믿음이다. 지금도 내 삶과 피조물에 대하여 성경 그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말이다.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교회가 ‘진화가 틀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앙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화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이제 한국 교회도 여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교수의 이런 식의 책이 등장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특별히 영국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은 교회가 성경을 신뢰하고 있을 때는 크게 고개를 들지 않고 있다가, 교회가 약해지는 시점에 고개를 든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동일한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탄의 유혹이 멈추었던 적은 단 1초도 없다. 여기에는 교회도, 과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자신이 만들어 내었던 진짜 역사를 숨기는 것이며,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우종학 교수의 책 출판을 계기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약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국교회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진화론이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성경이 왜곡되는 지를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막 8:38)

우리에겐 과거 거기 계셨던 예수님께서 계시해주신 진짜 역사책이 있다. 이 성경책이 어떤 과정에서 내 손에 왔는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핍박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며, 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고초를 겪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말이다. 우종학 교수의 책을 읽으며 필자는 내내 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시면 아래 도서를 읽기 권합니다.

이재만 (2015), “한국에 등장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 **목회와 신학**, p166-173.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vs 진화론 (이재만, 두란노, 2014)

노아홍수 콘서트: 땅에게 물어보라! 욥기12:8 (이재만, 두란노, 2009)